

건강 칼럼

마이코플라즈마 대유행 중... 폐렴 대처와 치료는 어떻게?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 기준,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280명 중 270명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전국 218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아과 의원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감, 계절성 감기 등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유행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초기에 두통, 발열, 인후통 등 일반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3~7일 동안 점점 진행되면서 목소리가 쉬거나 기침이 발생할 수 있으며 38도 이상의 고열도 생길 수 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송준철

부천우리병원 내과 과장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의심해야 한다. 발열이 무척 심하고 기침이 오래간다는 점이 일반적인 감기와 다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증상은 매우 오래가는 것이 특징인데 통상 3~4주까지 증상이 유지될 수 있으며 길게는 6주까지도 기침,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이염이나 축농증, 폐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12세 미만의 어린이, 영유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건강한 성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검사를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확인되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항생제를 투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치료제 내성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항생제 등을 이용해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은 기관지가 약하고 체력이 낮아 한 순간에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린 상태에서 치료가 늦어지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곧장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외에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침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기관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설

새만금 SOC 예산 문제

새만금 SOC 예산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이 일부 복원된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새만금 공항은 가까스로 살렸지만, 철도를 내주는 일이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다. 4개월 전 정부는 5천억 원을 삭감했다. 막판에 3천억 원만 복원하기로 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관심이 집중된 새만금 신공항은 일단 좌초 위기에선 벗어났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보다 250억 원이 넘게 부족하다. 공항은 살렸지만, 새만금항 입입 철도를 내준 것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설계비 등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과국이 불가피해졌다.

공사를 5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삭감 위기를 벗어났다. 오히려 200억 원 넘게 늘어났

다. 신항만도 예산이 100% 가까이 복원됐다.

10개 SOC 사업 가운데 기사 회생에 성공한 건 이 두 가지 사업이 전부다. 2024년 새로 추진하려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와 기타 내부 개발 예산은 전액 또는 70%가 삭감됐다.

새만금의 변화를 기피하는 정부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더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경우, 줄줄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실상 좌초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 SOC사업은 2040년까지 약 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은 명색이 백년대계를 앞둔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예산이 정치적으로 삭감되고 또 줄속으로 증액되는 과정에 도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제14회 소묵서화 회원전

제14회 소묵서화 회원전이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2006년 11월 제1회 전시회를 가진 뒤 17년 만이다. 코로나 때에는 열지 않았다.

소묵화(素墨畵) 회원들은 문인화(文人畵)를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모두 소당(素堂) 김연익(金蓮翼)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다. 이번 전시에는 소당의 제자 박병래 회장 등 42명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있던 필력을 맘껏 선보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회원전을 연 소묵회원들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순수 예술인들의 열정이 그대로 배어났다.

매. 난. 국. 족의 사군자를 비롯해 문인화, 산수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깊어가는 겨울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소당 김연익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외형미(外形美) 보다 내면세계(內面世界)를 더

욱 다져 나가는 진정한 문인 화가(文人畫家)로서 한 단계 성숙된 자각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먹을 잡고 비우는 마음으로 붓을 들라."고 말한다. 소당은 이번 소묵회전에서 찬조출품으로 '물외유(物外遊)'란 제목의 작품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속세에서 벗어나 노닐다'는 의미다.

한편 소당 김연익은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 운영위원 이사, 대한민국의미술포럼 이사,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의미술포럼 이사, 심사, 운영 그리고 온고을미술대전 초대작가, 이사, 운영 심사료 활약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문인화와 사군자를 가르치면서 후진 양성에도 전력을 쏟았다. 소묵회원들의 붓과의 인연이 평생 이어지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온타리오 호수에 뛰어드는 북극곰 수영 참가자들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에서 새해맞이 자선모금 연례 북극곰 수영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온타리오 호수에 뛰어 들고 있다.

지진으로 갈라진 아나미즈마치 도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일 아나미즈마치의 도로가 갈라져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재민의 구명·구조는 시간 싸움"이라며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